



에너지관리공단은 '작은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이기섭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의 11번째 수장이 된 이기섭 이사장은 공단이나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지난 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기섭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을 '작은 정부' 라고 표현했다.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단이 곧 '정부'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소위 낙하산 인사 시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산업자원부에 근무할 당시 1급 공무원 6명중 제 나이가 3~4살 정도 어렸습니다. 그곳에서 더 커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름의 큰 뜻이 있어 당당히 퇴직한 것일 뿐 때가 되고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어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 고위 관료 출신인 자신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어떤 의미로도 확신이 두렷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면에서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관련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기섭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기섭 이사장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상당부분 구체화한 상태였다.

"에너지절약기술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나 자원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선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캐치 업(Catch-up)을 통해 산업화도 유도하겠습니다. 탄소경제를 대신할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추진에 매진하고 가

정용 연료전지 실증연구와 수소 스테이션의 국산화, 수출산업육성을 위해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적극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과제 선정시 특허분석과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해 성과지향적 과제를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이기섭 이사장은 덧붙혔다.

또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상용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에너지 사용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절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이기섭 이사장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 부문별로 에너지이용시스템 자체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산업부문에서는 산업체 에너지경영(EQM)을 본격 추진해 산업체의 품질관리활동을 에너지분야에 도입하고 에너지절약 운동을 통해 단위사업장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하며 전사적/전 주기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보급을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이상(연간 200toe 이상)의 기존건물 매매 거래시 '에너지등급평가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기준 평균연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유도와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섭이사장은 "신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은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 에너지사용주체는 물론 언론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동업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